



원격수업공모전 '차이나는 원격클래스'

[공모목적]

다양한 원격수업 사례 발굴을 통한 원격수업 질 개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장기화된 비대면 수업의 긍정적 학습동기 부여

[공모주제]

원격수업을 통한 나의 학습방법 및 수업사례 공유



본초학과 함께하는 랜선 나들이

2348267 한의학과 곽성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바이러스로 인해 수업을 인터넷을 통해 원격으로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걱정이 산더미 같았다. 내가 수업을 듣게 될 이번 학기부터는 교양이나 선택 과목 없이 모두 전공 필수 과목인 데다, 시간표에 짜인 과목들이 어느 하나 만만한 것 없는 수업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강은 필연적으로 다가왔고, 나의 우려들과는 달리 전공과목들의 원격 수업은 어느 정도 정돈된 모습을 갖추고 진행되었는데, 그중에서 지금까지도 아주 인상 깊게 수강하고 있는 '본초학 실습' 과목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본초학 실습'은 한약을 만들 때 그 바탕이 되는 식물과 약재를 직접 만지며 살펴보는 과목인데, 이 과목을 어떻게 원격 수업으로 진행할지 전혀 예측되지 않았다. 온라인을 통해서는 실제로 체험하는 과정을 거칠 수 없으니, 이 과목에 대한 원격 수업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서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배워야 할 약재들에 대해 본초 감별 도감을 통해 알아보았는데, PDF 파일로 된 본초 감별 도감이 우리가 보는 화면상에 실시간으로 띄워져서 진행되었기에, 해당 본초의 기원이 되는 식물의 줄기, 잎, 꽃 등의 모습이 풀 컬러 사진을 통해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약재의 외형과 단면의 모습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그 약재의 생김새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지난 학기에 진행됐던 다른 본초 관련 수업에서는, 넓은 강의실 안에서 빔프로젝터를 이용해서 스크린에 띄우다 보니 글자도 작고 사물이 흐릿해서 수업의 흐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원격 수업에서는 내가 직접 모니터에 띄운 PDF 파일처럼 글자가 선명했고 약재의 사진도 또렷하게 볼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이 매우 만족스러웠다.

그리고 본초 감별 도감을 이용한 수업 중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참고할만한 인터넷 사이트로 바로 이동해서 보충 설명이 이루어진 부분도 궁금한 점을 바로바로 물어주는 느낌이 들어 좋았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약(생약) 데이터베이스를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도감의 보충 자료로 활용하기도 하였고, 다른 본초 수업에서 사용하는 본초학 교과서를 띄워서 추가로 본초 약물의 귀경이나 성미, 효능 및 주치증과 연결해 생각해보기도 하였다. (중략)

처음에는 걱정도 많고 부담스럽기도 했던 원격 수업이었지만, 잘 정돈된 시스템 속에서 만나게 된 온라인 강의는 방학이 끝나고 맞이한 나의 생활을 시나브로 변화시켰다. 정해진 수업 시간 속에서 수동적으로 이끌려가던 지난 학기의 학습 태도에서 벗어나, 온라인 수업은 나 자신의 학습이해도에만 온전히 포커스를 맞추어 진행되어야 했으므로, 조금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학습 태도를 기를 수 있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내 역량에 맞는 나만의 주별 수강 계획표도 세우게 되었고, 주말에는 학습 성과를 되돌아보며 반성하는 시간도 가졌다.



[공모목적]

다양한 원격수업 사례 발굴을 통한 원격수업 질 개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장기화된 비대면 수업의 긍정적 학습동기 부여

[공모주제]

원격수업을 통한 나의 학습방법 및 수업사례 공유



사 계 절

2468071 중등특수교육학과 민지호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의 풍경도 많이 변하였지만 학교의 풍경도 많이 변하였다. 유치원부터 시작하여 대학생까지 말이다. 우리가 미래에 생각해보았던 수업시간의 모습. 즉, 원격수업 말이다. 학생들도 처음 겪은 원격수업, 그리고 선생님 혹은 교수님까지도 갑작스러운 원격수업. 모두에게나 큰 숙제로 남아있었다. 숙제 중 하나인 어떻게 하면 학생의 입장에서 교수님의 수업을 잘 이해하고, 학생과 교수님이 수업에 만족하는지 말이다. 이번 원격수업의 우수사례를 소개할 과목은 의사소통 장애아 교육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 수업은 학생도 교수님도 만족할 만한 강의로 이루어져서 소개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부터 사계절로 비유된 의사소통장애아 교육 수업을 소개하겠습니다.

1. 봄의 시작

처음 소제목을 봄의 시작으로 시작해보았다. 그 이유는 봄은 꽃이 피고, 새싹이 돋으며, 파릇파릇한 생명의 기운을 느낄 수 있고, 처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계절이기에 처음 이 강의를 들었을 때도, 봄의 기운을 느꼈기 때문에 봄의 시작으로 비유했다. 이 강의를 처음 시작했을 때, 교수님도 학생인 우리도 처음 겪어 봐서 서로 어색하게 시작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서는 전달에 부족함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하셨다. 반복법을 사용하시며 중요도를 설명하시고, 마우스를 사용하여 그림을 그리시면서 구조의 어려움을 쉽게 나타내셨다. 그리고 실제로 대면 강의처럼 질문도 하시고, 시간을 기다려주심으로써 학생으로 하여금 수업의 내용을 상기시키게 해주시고, 집중도를 높일 수 있게 해주셨다. 또한, 우리가 집중력이 떨어질 때쯤, 학교의 상황과 현재의 학교 모습, 우리의 근황 등을 물으시면서 겨울의 잠으로부터 떨쳐 버리게 하시고, 봄의 새싹처럼 파릇파릇하게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셨다. 그리고 코로나19로 힘든 학생들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셨다.

1 주차 수업을 통해서 봄에 아름다움을 느끼기 위해서 기다리는 개나리처럼, 벚꽃처럼 의사소통장애아 교육 수업도 매주 기다려지고, 설레게 하는 과목이 되었다. 그리고 수업의 이해도 및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예습과 복습을 하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었다. (중략)

4. 되돌아보는 겨울

겨울은 한해의 마지막 계절이자, 한해를 정리하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절이다. 현재 5 주차 강의가 마치는 이 시점에서 이 글을 통해서 새로운 다짐과 이때까지 공부한 것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라서 되돌아보는 겨울이라고 했다. 또한, 대면 강의의 소중함, 친구와 같이 수업했던 소중함, 지각을 할까 봐 뛰어다니는 모습의 소중함도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 의사소통장애아 교육 강의의 우수성은 원격강의에서도 학업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반복법을 통해서 중요도를 나타내는 것, 그림을 직접 그리시면서 설명 등이 첫 번째 우수성이라고 할 수 있다.

